

# ‘우리쌀 건강 디저트 교육’

### 익산시, 밀가루 대체 ‘바로미 2’ 활용... 지역 가공업체들 교육 참여·수료식 개최

익산시는 쌀소비 촉진을 위한 ‘우리쌀 건강 디저트 교육’이 인기를 끌었다고 밝혔다.

시는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우리쌀 활용 디저트 만들기 교육’이 지난 27일 24명의 교육생이 참석한 가운데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27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쌀스콘, 쌀 에그타르트, 티그레, 다쿠아즈, 휘낭시에 등 쌀 디저트 20여종을 배우는 실습 과정으로 진행됐다.

특히 밀가루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밀가루 대체용 가공용쌀인 ‘바로미 2’를 활용했다. 밀가루의 글루텐 성분이 없어 소



화도 잘되고 맛 또한 일반 빵과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뛰어난 평가를 얻었다.

교육은 농업인 뿐만 아니라 지역 가공업체들까지 확대해 익산 농산물인 고구마, 콩, 쌀 등을 활용한 디저트류 상품화 실습교육 형태로 진행돼 참여

열기가 뜨거웠다.

시는 ‘바로미 2’를 금강동 일원에 30ha 계약재배 단지를 조성 중이며, 앞으로 리이스 건강 디저트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농촌진흥청 주관 ‘2023년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10억 예산을 확보했으며 이번 교육은 내년 사업 진행에 밑거름이 되는 테스트 베드 형태의 실습 교육형태로 추진됐다.

수업에 참여한 춘포면 임영신 교육생은 “수업 시간이 너무 짧다고 느낄 정도로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시는 27일 군산 은파호수공원에서 행복한 동행 스탬프 챌린지 라는 슬로건으로 장애인 걷기대회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 ‘행복한 동행 스탬프 챌린지’

### 군산시, 은파호수공원에서 장애인 걷기대회 성황리 마쳐

군산시는 27일 군산 은파호수공원에서 ‘행복한 동행 스탬프 챌린지’라는 슬로건으로 장애인 걷기대회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장애인 걷기대회 행사는 사)군산시 장애인연합회(회장 정경섭)가 주관했으며, 장애인과 시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 참여자들에게 티셔츠를 배부하고 정해진 코스 완주 시 경품을 지급했다.

행사장에서는 페이스페인팅, 풍선아트, 축하공연 등 각종 이벤트와 국제바리스타 평생교육학원에서 참가자들에게 커피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이 이뤄진 축제의 장이

열렸다.

시장에인연합회 관계자는 “행사에 참석해 주신 관계자분들과 평소 장애인복지향상에 관심과 후원을 아끼지 않은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일상 생활에서 장애를 이유로 편견과 차별을 받지 않고 모두 함께 행복한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코로나19로 누구보다 힘들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잘 참고 인내해주신 장애인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장애인을 위한 여가활동, 체육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 익산서동축제 성공기원 ‘무왕제례’ 개최

### 축제 개막 10월 1일 오후 3시 서동공원에서 진행

익산서동축제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개최와 시민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무왕제례가 축제 개막일인 오는 10월 1일 금마면 서동공원에서 개최된다.

익산시와 익산문화관광재단이 주최하고 익산문화원이 주관하는 이번 무왕제례에서 초헌관은 정현을 익산시장, 아헌관은 최종오 익산시의회 의장, 종헌관은 문진호 익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사가 맡는다.

무왕제례는 익산문화원 화원무단의 부채춤 공연을 시작으로 신관례, 초헌례, 아헌례, 종헌례, 음복례, 망묘례의 순서로 진행된다. 익산문화원 국악오케스트라 20여 명의 제례악단이 제례악을 연주한다.

특히 익산문화원의 서동취타대를 선두로 헌관 및 제관 등 60여명으로 구



성된 행렬단이 어패를 옮기는 과정은 무왕 제례의 가장 큰 볼거리를 이룬다.

무왕제례는 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합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1996년 5월 10일 개최한 제1회 마한제례가 효시이며 2005년부터 무왕제례로 이름을 바꾸어 개최되는 역사가 깊은 제례다.

이재호 익산문화원장은 “무왕 제례를 시작으로 금마 서동공원에서 10월 1일부터 3일까지 펼쳐지는 서동축제가 지역의 축제를 넘어 전라북도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익산문화원 회원 가족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 군산시,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사업 신청 기간 2주 연장

군산시는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사업 신청기간을 오는 10월 7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시는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23일까지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사업 신청 기간을 중간 정산한 결과 약 55%(23일 기준 2584건 5억여원)가 신청해 추가로 신청기간을 2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추가로 10월 7일까지 농기

계용 면세유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면세유 사용 기간 중 4개월분에 대해 사용한 면세유를 3~6월 기준 (리터당 경유 322원, 휘발유 276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군산시에 주소지를 두고 농협에서 면세유 카드 발급받은 농업인, 농업법인인 신청가능하고 사업신청서와 면세유 배정량 및 사용량 확인서를 본인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김미정 농촌지원과장은 “이번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사업이 급격한 유가 상승으로 어려운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경감시키고 군산시의 안정적인 식량 생산기반에 이바지하는 기대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사업 관련 자세한 문의는 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063-454-5901~3)로 연락하면 된다. /군산=김판곤 기자

## 문화도시 익산, ‘우리동네 이야기책 만들기’ 모집

익산시가 시민들과 함께 마을의 역사를 담아가는 ‘우리동네 이야기책’을 만든다.

“우리동네 이야기책 만들기”란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의 문화·인물·전설·주민들의 삶 등 역사·문화적 자원을 조사·발굴하여 수집된 결과물을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사진과 함께 ‘마을 이야기책’으로 제작하는 것이다.

시는 ‘2022 우리동네 이야기책 만들기’ 사업에 참여한 시민들을 다음달 11일부터 14일까지 모집한다.

참여대상은 익산을 사랑하고 역사에 관심 있는 익산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협의체나 동아리처럼 최소 7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신청하면 된다. 단, 50%이상이 신청 마을 주민이어야 한다.

올해는 총 3개의 마을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팀은 11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 약 5개월의 기간동안 사업을 진행하며, 1,000만원 이내에서 활동지원비를 받는다.

원도원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장은 “이야기책 만들기는 지역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요즘 마을의 과거를 정리하고 현재를 기록으로 남기는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며 “마을의 자원을 찾아보고 지금을 사는 주민들의 삶과 기억을 담아내며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사전신청’에서 접수 가능하다. 상세 문의는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063-853-6783)로 하면 된다.

/익산=이재훈 기자

### 지역 소식통

#### 제5회 군산우체통거리 순편지 축제 개최

도시재생사업으로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우체통거리에서 특별한 축제가 열리며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시는 오는 10월 1일 군산우체통거리 경관협정운영회(회장 배학서) 주관으로 ‘제5회 군산우체통거리 순편지 축제’를 개최한다.

우체통거리(군산시 우체국앞~사거리)는 페우체통에 색과 그림을 입혀 군산우체국 앞 도로가에 설치하는 조그마한 행사로 시작해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우수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이날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는 순편지 축제는 ‘행복’을 주제로 순편지를 쓰고 군산여고 동문합창단, 다문화예술(국악)단공연, 리틀은파어린이 합창단 공연 등 다양한 공연과 체험행사를 즐길 수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 익산시, 보석박물관 안전대전환 합동점검

익산시는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을 위한 집중 안전점검’의 일환으로 방문객이 많은 관광지인 안전점검 실시해 나갔다.

27일 시에 따르면 오락림 부시장은 집중안전점검 관련부서 공무원, 건축, 소방, 전기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왕곡면에 위치한 보석박물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대한민국 안전 대전환을 위한 집중안전점검’은 지난달 17일부터 14일까지 총 59일간 익산시 8개소 시설물에 대해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굴·해소하고, 안전관리체계 확립과 자율안전점검 실천운동 확산을 위한 사회적 안전운동이다.

점검대상자인 보석박물관은 2002년 5월 개관하여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대표 관광 시설로 최근 다이나믹스월드 등 액티비티시설 등이 운영되며 왕곡보석박물관까지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 합동점검에 참여한 오락림 부시장은 가을철 관광객들이 급증한 만큼 각종 재난상황에 철저한 대비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